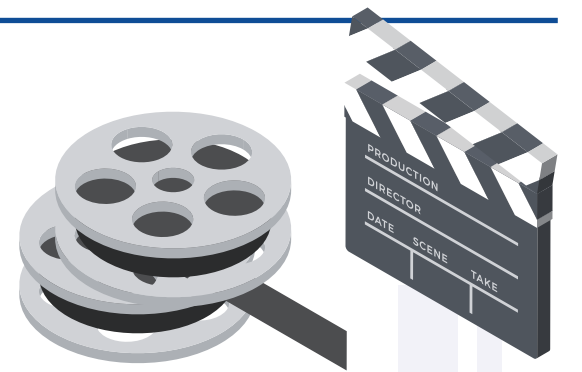




'해적: 도깨비 깃발'



'킹메이커'



Cinema

정치·모험·추리...온 가족 골라 보는 재미 가득

전국 영화관이 특수를 맞는 설 대목.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패스 시설 적용에 따른 긴 어둠을 거처야 했던 극장가가 이번 설 연휴 개봉작을 통해 다시금 기회를 쫓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연휴의 중심에 있는 작품은 지난 26일 개봉한 한국 영화 '해적:도깨비 깃발' (이하 '해적2')과 '킹메이커'다. 두 영화는 일일 박스오피스 1,2위로 출발했다.

2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전날 개봉한 '해적2'는 9만2,000여 명(매출액 점유율 53.7%)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2014년 개봉해 800만 관객을 동원한 '해적:바다로 간 산적' 후속작인 '해적2'는 고려 왕실의 보물을 찾아 나선 해적과 의적, 역적의 모험을 유쾌하게 그려낸 오락 영화다.

함께 개봉한 '킹메이커'는 4만7,000여 명(27.3%)의 관객을 모으며 2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두 영화가 어렵게 개봉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흥행 성적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날 오전 실시간 예매율은 '해적'이 44.6%, '킹메이커'가 21.7%를 기록하고 있다.

'해적2'는 2022년 새해를 연 첫 대작 한국 영화로, 작품의 완성도보다는 코믹 어드벤처물에 가까운 팝콘 무비로서의 강점이 두드러진다.

강하늘, 한효주, 이광수, 권상우가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지난 2014년 개봉한 '해적:바다로 간 산적'의 속편이다. 전편과 같이 바다를 무대로 한 도둑들의 모

'짜짜한 로맨스', '탐정: 더 비기닝' 등 코미디 영화를 주로 선보인 김정훈 감독이 연출을 맡아서인지 제작적소에 삽입된 코믹 요소도 매력 포인트다. 특히 허술하기 짝이 없는 막이 역의 이광수가 큰 웃음을 선사한다.

같은 날 개봉한 '킹메이커'는 고(故) 김대중 전 대

재'로 묘사되는 엄창록을 모티브로 한다는 것과, 대선을 코앞에 두고 개봉한다는 점에서 관객들의 눈길을 끈다.

'불한당: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로 연출력을 인정 받은 변성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스타일리시하고 감각적인 연출로 두 인물을 조명한다. 자칫하면 무거울 수 있는 정치를 소재로 하고 있으나 영화 속에 적당한 유머를 가미해 딱딱하게 풀어내지 않았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한편 연휴를 맞아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도 잇달아 개봉했다.

27일 개봉한 '극장판 안녕 자두야: 제주도의 비밀'은 '안녕 자두야'의 두 번째 극장판으로, 자두 캐릭터 탄생 25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작품이다. 영화는 난생 처음 제주도 여행을 떠난 명랑소녀 자두가 라이벌 전복이와 함께 제주를 품은 돌하르방의 비밀을 깨우면서 벌어지는 모험을 그린다.

같은 날 개봉한 '극장판 천재 추리 탐정 셜록홈즈'는 과학과 추리를 결합한 애니메이션으로, 19세기 런던을 배경으로 홈즈와 도둑 화이트 스톰의 치열한 두뇌 싸움을 스크린에 담아냈다. 가족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텅 비었던 극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즐겨보는 것도 닷새 간의 긴 설 연휴를 보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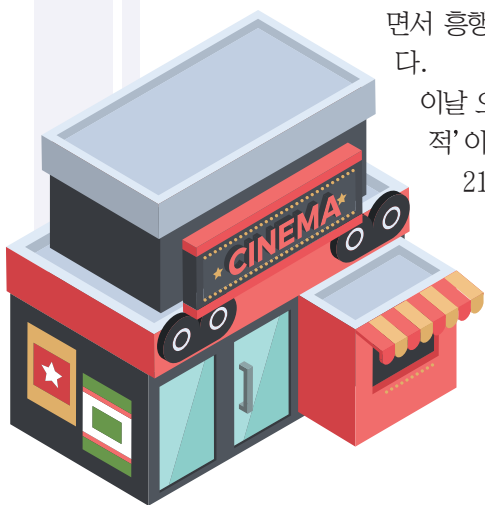
임인년 새해 첫 대작 한국 영화 '해적:도깨비 깃발' 김대중 대통령 선거 참모 엄창록 모티브 '킹메이커' 안녕 자두야·셜록 홈즈 등 가족 겨냥 애니메이션도

험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해적 영화인 '캐리비안의 해적' 처럼 신비한 판타지 요소를 가미하는데 주목했다는 점이 주요 관람 포인트다.

해적 일당들이 바닷속 금류를 타고 해파리와 물고기 때 사이를 뚫고 가는 장면을 포함해 365일 베팅이치는 섬, 해적선을 뒤흔치는 거대한 쓰나미, 바다를 뚫고 솟구치는 사벨건 불기둥 등이 실감나게 표현됐다.

통령과 그의 숨겨진 선거 참모 엄창록의 이야기를 극화한 정치물이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야망 정치인 김운범 역은 설경구가,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전략가 서창대 역은 이선균이 맡았다. 이 밖에도 조우진, 유재명, 박인환, 이해영, 김성오, 전배수, 김종수 등 훌륭한 연기력을 갖춘 조연들까지 라인업도 탄탄하다.

무엇보다 아는 이도 많고, 기록에도 잘 남아 있지 않지만 '선거판의 여우', '흑색선전의 귀



Movie



'극장판 천재 추리 탐정 셜록홈즈'



'극장판 안녕 자두야: 제주도의 비밀'

네모난 교실은 잊어라!



전남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5개년 175개교, 1조3천억 투자

-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다양한 공간혁신
-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교실
-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복합화